

공정위, '98년도 상반기 기업결합동향 발표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공정위에서 처리한 지난 1998년도 상반기 기업결합동향에 대해 발표했다.

'98년 상반기의 기업결합동향에 대한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, '98년도 상반기중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은 총 219건으로서 '97년 상반기의 210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'98년 상반기의 기업결합을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의 비중이 46.6%로 가장 높고 수평결합 34.2%, 수직결합 19.2% 순으로서, '97년 상반기에 비해 수평·수직결합의 비중은 대폭 증가하여

34%에서 20%가 증가한 54%로 나타났으며, 반대로 혼합결합의 비중은 66%에서 46%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기업들이 IMF 금융지원하의 불황기에서 사업다각화를 지양하고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업종간 기업결합에 치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.

또한 '98년도 상반기 기업결합을 수단별로 보면, 합병의 비중이 29.7%로 가장 높고 회사신설 29.2%, 주식취득 16.4%, 영업양수 16.9% 순으로서, '97년 상반기에 비해 주식취득과 회사신설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합병, 영업양수 등에 의한 기업결합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 년도별 기업결합 추이 >

년 도	'94	'95	'96	'97	'97 상반기	'98 상반기
기업결합 처리건수	195	325	393	418	210	219
(증감율, %)	(58.5)	(66.7)	(20.9)	(6.4)	(-)	(4.3)

또한 전체 기업결합 중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전체의 44.7%에 달하는 98건이며,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121건으로서 '97년 상반기에 비해 계열사간 기업결합이 증가함으로써 이는 한계사업정리 등 기업의 자구노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계열사간 기업결합을 수단별로 보면, 기업의 기축경영에 대한 노력의 강화 및 계열사 인수방식

에 의한 한계사업정리가 증가함으로 인해 '97년도 상반기에 비해 합병과 영업양수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, 경영인력의 공동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반영하여 임원겸임의 건수도 증가하였고, 개별회사별로 타사 지분 20% 초과시 신고해야 했던 신고제도가 계열회사를 합하여 타사 지분 20% 초과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식취득의 건수는 크게 감소하였다.

< 계열사간 수단별 기업결합 >

(건/%)

구 분	주식취득		임원겸임		합 병		영업양수		계
'97	39	31.7	8	6.5	67	54.5	9	7.3	123
'97. 1~6	33	44.6	5	6.8	30	40.5	6	8.1	74
'98. 1~6	2	2.1	15	15.3	64	65.3	17	17.3	98

.....
공정위업무활동

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을 수단별로 보면,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낮아 경영권 인수방법으로 주식취득이나 합병보다는 영업양수의 방식이 선호됨에 따라 '97년 상반기에 비해 영업양수의 건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, 주식취득이나 합병의 건수는 크

게 감소하였으며, 회사신설의 경우 기업확장으로 보기 어려운 「사업부독립 목적의 회사신설」 건수는 '97년 상반기와 비슷하나 신규사업진출 목적의 회사신설은 감소하여 기업의 확장성향이 감소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.

< 비계열사간 수단별 기업결합 >

(건/%)

구 분	주식취득		임원겸임		합 병		영업양수		계
'97	91	30.8	19	6.4	8	2.7	14	55.3	295
'97. 1~6	54	39.7	2	1.5	5	3.7	4	52.2	136
'98. 1~6	34	28.1	4	3.3	1	0.8	18	14.9	121

또한 '97년말 외환위기 후 외자도입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'98년 상반기 중 외국기업(100% 외투기업 포함)에 의한 기업결합은 51건으로 전체의 23.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는 '97년 상반기 중 5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로서 이에 따른 외자도입금액도 3조4천억원(24억95백만원 상당)로서 '97년도 상반기의 48억원(6백만원 상당)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30대 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69건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.5%이며, 이중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전체의 49.3%인 34건이며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50.7%인 35건으로 양자의 구성비는 전체 기업결합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업종별 기업결합은 '98년 상반기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업종에 걸쳐 경영권 변화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< 비계열사간 수단별 기업결합 >

구 분	제 조 업							서 비 스 업							합계	
	기계 조립 금속	전기 전자	석유 화학 의약	비금속 광물	음식 료	기타	소계	금융	건설	도소매 유통	정보 통신 방송	음식 숙박	운수	기타		소계
주식취득	3	7	2	-	-	2	14	5	1	1	10	1	1	3	22	36
영업양수	6	6	2	-	4	2	20	1	1	8	5	-	-	-	15	35
합 병	6	7	6	2	1	15	37	2	5	7	1	1	1	10	27	64
임원겸임	1	3	-	-	4	-	8	4	1	1	5	-	-	-	11	19
회사설립	6	6	14	-	4	4	34	5	3	3	9	-	3	8	31	85
계	22	29	24	2	13	23	113	17	11	20	30	2	5	21	106	219

또한 공정위는 '98년 상반기 중 총 219건의 기업결합 처리건수 중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14건에 대하여 경고조치하였으며, P&G GmbH의 쌍용제지(주) 주식취득 1건에 대해서는 시장독과점화로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는 종이생리대 영업부문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¹⁾하였다. 그리고 '98년 2월부터 시행된 기업결합 간이심사제도에 의해 '98년 상반기 중 처리한 건수는 총 기업결합 건수의 61.9%에 해당하는 135건으로,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신고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고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.

< 간이심사처리 결과 >

유형별	처리건수	유형별 간이심사기준	전체 비중(%)
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	97	71.8	44.3
지배관계 형성	9	6.7	4.1
단독 회사 설립	21	15.6	9.6
대규모회사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자의 혼합결합	8	5.9	3.6
간이심사 합계	135	100.0	61.6
전체기업결합 ('98. 1.~6월 처리건수)	219건		100.0

◆ '98년 상반기 기업결합 처리실적 ◆

구 분	유형	'98년도						'97년도						
		주식 취득	임원 겸임	합병	영업 양수	회사 신설	계	주식 취득	임원 겸임	합병	영업 양수	회사 신설	계	
계열사 간	30대 그룹	수평	-	-	5	6	-	11	-	-	3	-	-	3
		수직	-	-	4	3	-	7	-	1	1	-	-	2
		혼합	2	3	11	3	-	17	2	3	8	3	-	13
		소계	1	2	20	12	-	35	2	4	12	3	-	18
기업 결합	비30대 기업	수평	-	-	15	2	-	22	1	1	6	-	-	8
		수직	-	-	6	-	-	9	1	2	3	3	-	9
		혼합	1	5	23	3	-	32	29	-	9	1	-	39
		소계	1	13	44	5	-	63	31	3	18	4	-	56
합 계		2	15	64	17	-	98	33	5	30	6	-	74	
비 계열사 간	30대 기업	수평	3	-	-	1	4	8	3	-	-	-	6	9
		수직	2	21	1	1	5	11	8	-	-	2	5	15
		혼합	6	3	-	1	7	15	14	1	2	2	26	43
		소계	11	-	1	3	16	34	25	-	2	-	37	67
기업 결합	비30대 기업	수평	9	-	-	11	14	34	4	-	-	-	8	16
		수직	2	1	-	2	11	15	3	-	-	-	5	9
		혼합	12	1	-	2	23	38	22	1	-	3	21	44
		소계	23	4	-	15	48	87	29	2	3	5	34	69
합 계		34	19	1	18	64	121	54	2	5	4	71	136	
총 계		36		65	35	64	219	87	7	35	10	71	210	

1) 1998. 5. 23.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-84호(사건번호 9801기결0063 동 심결의 해설은 대해서는 공정경쟁 제34호('98.6) pp.38~45 참조